



엄마의 '아리랑'

글. 이용미(덕양구 토당동)

반 평 남짓 되는 텃밭에 상추, 고추, 가지, 토마토 등을 심었습니다. 생전에 엄마가 가꾸던 작은 텃밭을 이제 딸이 이어받았습니다.

아기 고양이 발톱만 한 열매가 매달리더니 이제 제법 자신들의 모양을 드러냅니다. 엇그제 처음으로 고추를 수확해 된장에 찍어 먹으며 그리운 엄마가 생각나서 울컥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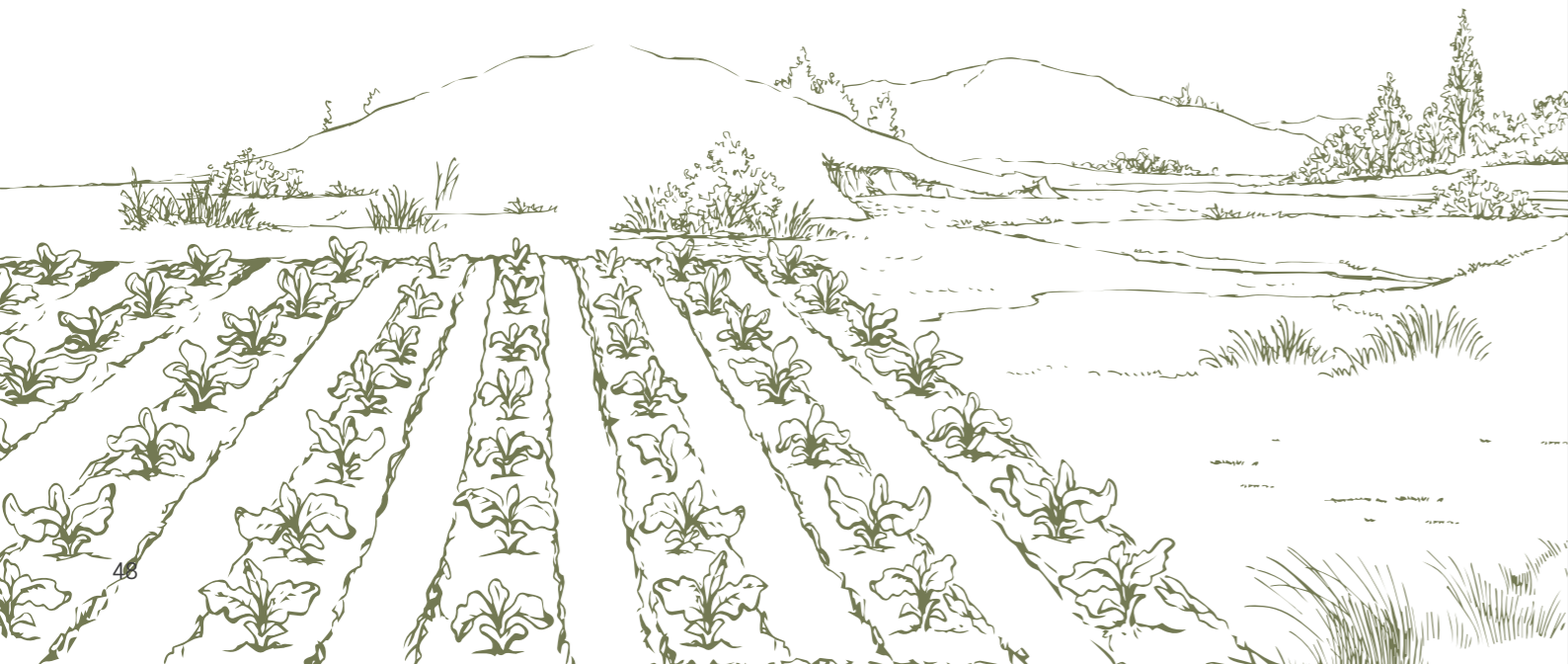
엄마는 텃밭을 가꾸며 그들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셨지요. 때론 '아리랑'을 불러주며 정성껏 그들과 소통했습니다.

이제 텃밭 앞에 서면 돌아가신 엄마의 생전 모습과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. 세월이 우리 엄마를 데려갔지만 제 마음의 엄마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.

엄마의 향기와 추억이 가득한 텃밭에서 저는 가슴 따뜻한 엄마의 미소를 떠올리며 먹먹한 가슴을 쓸어 내립니다.

저와 엄마의 사랑을 이어주는 저 조그만 텃밭이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.

열매가 튼실하게 익어갈수록 엄마를 향한 그리움도 익어가고 제 마음은 더욱 넉넉하고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♡



독자 소리함



민선8기, 시민이 바라는 고양은?

108만 고양특례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더욱 발전해가기 위해 시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. 민선8기 고양특례시에 바라는 제안, 응원 등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.

※ 고양소식 9월호에 수록되시는 분께는 소정의 고양페이를 보내드립니다.

참여 방법 게재될 본인 사진, 이름, 주소, 휴대전화 번호를 고양소식 이메일 (gysosik@naver.com)로 발송
응모 기간 8월 1일 ~ 8월 17일



'고양원픽' 4행시 챌린지

모바일 고양소식지의 새 이름 '고양.원.픽'으로 4행시를 지어주세요. 시민 여러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보내주세요. 당첨자는 추첨 후 고양원픽에 발표할 예정입니다.

※ 당첨자 10분에게 소정의 고양페이를 보내드립니다.

예) 고양의 웹진이 새로 오픈했습니다
양 질의 콘텐츠가 가득하네요
원 했던 고양시 웹진을 자주 볼 생각에
픽 쓰러질 것 같이 기뻐요!

참여 방법 고양원픽 4행시, 이름, 주소, 휴대전화 번호를 엽서 혹은 고양소식 이메일 (gysosik@naver.com)로 발송
응모 기간 8월 1일 ~ 8월 15일



시, 산문, 수필 등 시민의 실력을 맘껏 펼쳐주세요.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고양페이를 드리며,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원고 종류 시, 수필, 에세이, 기행문, 독후감, 사진, 만화 등 제한 없음
원고 분량 A4 용지 이내(시, 만화 등은 적정 분량)
보내실 곳 이메일 : gysosik@naver.com
우편 : 10460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(주교동)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실 <고양소식> 담당자
※ 보내주신 작품의 오타, 비문 등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.



이번 <고양소식>은 어떠셨나요?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 더 알찬 <고양소식>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

◀ 온라인 애독자 참여 바로가기

고양시와 소통해요!

오늘 고양시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? 다양한 소통 채널로 생생한 고양시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.



고양원픽



시 홈페이지



고양TV



카카오톡 채널



페이스북



네이버 블로그



인스타그램